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3회, 빛나라는 호소, 빌립보서 2:12-30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13, 빛나라는 호소, 빌립보서 2:12-30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서가 1세기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쓰여졌다는 사실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지만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적 기후와 정치적 기후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특정 도시의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중 국적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식민지라는 이유로 그리스인으로 태어났다면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의 수사적 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여 빌립보서에서 대화를 형성합니다. 저는 바울의 위대한 미덕에 대해 상기시켜 드렸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성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빌립보서에 대한 마지막 두 강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 교회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명확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 교회에 대한 기쁨과 흥분을 표현하고, 그런 다음 실제로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 수사적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큰 단어를 주었지만, 그 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사회의 핵심 인물이나 존경받는 인물을 예로 들어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써 교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지막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프로네시스가 여러분 안에도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취하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 그때부터 우리는 이 훌륭한 작품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그것이 유포되고 있는 찬송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해서 당신의 쇼를 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잊어버리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순종으로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성육신으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셨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보다 더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과 명예와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말 멋진 글입니다. 이것이 제가 Appeal to Shine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의 직접적인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은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너머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순종에 대한 급진적인 부름의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시작하는 곳이며,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였듯이, 내가 있는 동안뿐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여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원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 없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뒤틀리고 꼬인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여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 위에 제물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Appeal to Shine에 대한 토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강의의 마지막에 보여드린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특정 구절은 방금 12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연결하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12절에서 명확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으므로, 저는 여러분께 순종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빌립보서에 대한 해설을 발표한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의 학자 벤 워더링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패턴을 살펴보면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그리스어 수사학적 틀의 패턴을 발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당신을 지적했을 때, 당신은 “아니,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글썄요, 제가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워더링턴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에토스를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성격과 말하는 사람을 신뢰성이나 성실성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 수사학의 부분은 사람들이 듣고, 듣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워더링턴은 바울의 주장 구조에서 로고스는 실제로 2장 5절에서 11절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대화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수사학에서 로고스는 핵심, 본질, 토론, 그리고 전개되어야 할 주요 요점입니다. 그리고 워더링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절에서 18절까지는 감정인 파토스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의 수사학자나 수사학 학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설득하려면 수사학의 세 가지 핵심 측면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성, 본질, 감정적 연결, 파토스, 감정적 차원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워더링턴이 자신의 논평에서 설정한 틀 안에서 풀이 하려는 것을 포착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실제로 워더링턴이 주장할 요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맞추기 위해 진행 중인 일을 너무 과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요점은 이 특정 구절에서 12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매우 강력한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에는 감정적인 활력이 있고, 저는 순종의 본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세 가지 근거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개요를 살펴보고 잠시 후에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순종으로 빛나라고 호소하고, 특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잠깐 구원은 행위로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건가요? 그가 다른 곳에서 말한 것과 모순되지 않나요?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붙잡으세요. 순종으로 빛나라고 호소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몇 분 후에 풀어볼게요.

둘째, 행실에서 빛나십시오. 흠 없고 순진하십시오. 바울은 12절에서 18절에서 이 강력한 호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서 대중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이 흠이 없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부르고 믿는 신에게 멸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신은 "그게 내 자식이야"라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무죄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그들이 본보기로 빛나야 한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지적한 수사적 특징을 살펴보라고 도전할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잘한 사람들을 따라할 좋은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순종으로 빛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유지하라, 바울은 주장할 것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든, 당신의 면전에서 떨어져 있든, 그 순종의 감각을 유지하라. 사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네가 항상 순종했듯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내가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더욱 그러하도다. 네가 나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내가 너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해 내가 물리적으로 당신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 왜곡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 내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잡한 언어를 소개합니다.

와우.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세요. 여기서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공동체적 노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적어도 제가 어린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을 때, 마치 바울이 기독교의 어떤 법률적 버전을 소개하고 우리의 목구멍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구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내가 항상 생각했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실제로 칼빈주의자라면, 그들은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동료들이 우리를 겁에 질려 죽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친구와 논쟁할 주제입니다.

칼빈주의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아르메니아인은 구원과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어의 문법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복수이고 단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개인에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구원을 이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내거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빠르게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론하는 방식에서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스어 단어 일한다는 단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enegeo* 입니다. 알다시피, 약속드리지만, 그리스어를 많이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와 다음 강의 사이에 몇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스어 단어 한두 개를 넣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화내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나는 착한 소년이 될 거야. 여기서 그리스어는 *enegeo* 이다. 때때로 우리가 영어 단어 *energy*가 유래했다고 추정하는 단어이다.

면 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힘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힘을 주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원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자신의 구원과

떨림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합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강의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나는 누가 아르메니아 신앙고백적 배경에서 왔고 누가 칼빈주의 신앙고백적 배경에서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적 지위에서 더 높은 순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까?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주어는 복수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웰빙을 의미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배설물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 말씀드릴 훌륭한 책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을 주목하십시오. 행위의 결과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발견되는 그의 신학적 분석 중 일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만트라가 sola gratia, sol

a fide로 갈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며,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금액의 돈으로든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실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향한 지시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며,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빛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단어는 거룩함에 있어서 상호 지원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식민지에서 사는 미덕이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경향이든 모든 형태의 도전에 직면한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지원이든, 서로를 지원하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실제로 서로를 가능하게 하여,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구부러진 막대기를 든 이 사악한 할아버지와 같다는 공포감은 없습니다. 오, 당신은 감히 잘못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구부러진 막대기로 당신의 머리를 걷어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속하게 된 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신이라는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싶고,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에서 그를 공경하고 싶습니다. 그 경외감, 나는 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떨림의 감각.

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복수로 실천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생각으로만 남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자는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구원을 이루도록 되어 있지만 구원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회중의 구원의 성취는 신성한 내재적 역사에 근거하고 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신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에너지 또는 활력을 주는 요소라고 불리며, 순종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가 알게 된 동료이자 정말 존경하는 프랭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12에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입장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칼빈주의적 뿌리에서 나왔지만, 성경 연구 학자로서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면책 조항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벤 위더링턴이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면책 조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벤 위더링턴은 아르미니우스주의 관점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의 미묘한 뉘앙스를 살펴보세요.

벤은 바울이 개종 후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현재의 성화 과정과 배교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면 최종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학적 틀과

공동체가 성화에서 함께 일하는 방식이 최종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험을 결합하려는 아르미니우스 학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호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호소는 순종으로 빛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소는 12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았듯이, 행실에서 빛나라는 호소입니다. 행실에서 빛나라는 호소입니다.

비난받지 않는 것. 무고한 것. 그리고 바울이 비난받지 않는 것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재빨리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15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진해야 합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심지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와! 순진하고 순진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거룩한 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분과 논의하려고 했던 친족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명예가 가족 구성원의 행동에 달려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그들을 앞지른다. 바울은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다. 그는 그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고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거룩한 신. 그리고 그의 영광은 당신이 사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당신 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명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저 밖에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상이 있습니다. 그는 15절에서 그들에게 빛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도전합니다. 빛처럼 빛나십시오.

그가 손전등을 집어들고 그 어두운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풀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매우 어두운 환경을 상상해보세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빛이 현대 냉장고 조명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뭇가지와 기름이 옆에 있는 이 조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껍고 어두운 환경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작은 빛을 설치합니다. 그것은 손전등과 같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 매우 작고 좁은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든 크든 빛이며, 범위 내에서 주변의 어둠을 정복하기 위해 빛을 비춥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흠 없고 순진하며 빛나십시오.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빛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신이 알려지도록 하세요. 와우. 와우.

와우. 바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호기심 많은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호기심 많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정직성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 저는 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사생활이야. 사람들이 날 방해하지 못하게 해. 대체로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이 특정 구절의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의 수호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는 방식은 세상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빛나라고 말합니다.

빛을 꺼라. 당신이 가져온 빛, 당신이 가져온 도덕적 정직성이 어둠을 정복할 만큼 빛나게 하라.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 마을에서 자란 나는 어둠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달빛은 정말 놀랍고, 우리는 오, 멋진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이 가져오는 빛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지요. 우리 마을에서는 보름달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전기와 같습니다

공간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얼마나 작은지.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데, 아마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당신과 나에게 행동에서 빛나고, 흠 없고 순진하라고 도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인상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희망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는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사는 방식에 대해 실제로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사는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말론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맥락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로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앞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읽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붙들다라는 표현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붙잡거나 굳게 붙잡거나 굳건히 붙잡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굳건하고 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굳건히 붙잡고 그 안에 굳건히 서 있거나 복음주의적 전망을 갖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다가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렇습니다. 일부 해설자들은 이런 차이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와 선교 요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방식이 제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아십니까? 출처는 모르겠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로도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방식으로 삶을 산다면, 빛나면서, 당신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굳건히 붙잡고, 굳게 붙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웃리치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오, 저는 굳게 붙잡는 것을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둘 다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께 권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뚤어진 세상에서 빛나는 것은 선교적 활동이며,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다음 호소, 모방에 대한 호소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때 포스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tandard Publishing House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특정 포스터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포스터에는 제가 여기에 놓으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특정 포스터에서, 나이 든 남자가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비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세요. 제가 젊은 리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젊은 설교자였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 특정 포스터를 보게 되었을까요? 제 말은, 이 포스터는 제가 Youth for Christ에서 디렉터로 일하면서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이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하지만 요점은, 당신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방을 통해 빛나라고 호소합니다-17절.

비록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 제물 위에 술 제물로 부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를 반영하게 하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서 강의 초반에 밑줄 긋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노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게서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를 포함한 특정 사람들이 이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스케시스일 뿐입니다 .

14절의 특정 구절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논쟁 없이 하라"고 말할 때,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3~5 페이지가 이 특정 구절을 논의하는 데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 이것은 구약성경 구절에 대한 암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후에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답해 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구절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왔을 때, 마라의 물은 쓴맛이 나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23, 25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더라.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통나무를 보여 주셨다.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석가들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이 불평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재빨리 불평이나 논쟁이 구약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연결을 만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도 그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암시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16장 7-9절에서 훨씬 더 강력한 암시가 발견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희가 주께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떡을 주시리니 이는 주께서 너희가 주께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주를 원망하는 것이라.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에 대한 신약성서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 불평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저는 불평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grumble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영국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영국식 시각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때때로 mourn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mourning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울해집니다.

아시죠, 애도죠. 불평이죠. 아니, 불평이 아니에요.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당신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이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10에 이르러서도 불평의 언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주장을 강화하고 불평하는 대신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불평하고 논쟁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암시일 수 있다고 말하려고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한, 빌립보에는 회당을 가질 만큼 유대인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유대인적 배경이 그가 이런 연관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결정은 당신이 스스로 내리세요. 하지만 요점은 신이 항상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신은 항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흥미로운 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불평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좋아하시나요? 앞에 놓인 종이에 불평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호소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순종에서 빛나고, 행동에서 빛나고, 본받는 데서 빛나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의 마지막에, 그가 두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음 강의에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순종의 길을 걸으며 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보여줍니다. 큰 이름,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음,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에 요청한 것을 살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친숙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그는 연결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에게 온 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을 위해 한 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 회중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평소처럼 풀은 자신의 진정한 자질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풀에게서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질을 찾아보죠. 가장 중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이런 훌륭한 자질을 관찰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를 예로 들면서,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 너는 디모데에 대해 뭔가 알고 싶어한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게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단어, 거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때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문자 그대로 소울메이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 논의할 때, 그 강의를 보면, 어떤 학자들이 오, 사실, 바울이 그곳에서 동성애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제발, 소울메이트로 번역될 수 있는 이 특정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와 동성애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 방향으로 대담하게 말하는 학자가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 소울메이트가 된다는 것은 친밀한 감정적 연결과 함께 일하고 일을 하기로 동의하게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점은 바울이 디모데가 이런 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에 알리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걱정을 보인다. 사실, 여기서 걱정으로 번역된 단어는 불안이다. Marim은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종종 불안으로 번역하는 단어, 목회적 불안이다.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보다 더 고려하십시오. 디모데는 그 모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폴은 그가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섬겼고, 나는 그를 아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족 관계, 또다시.

폴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친숙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들이 저와 함께 여기 있고 우리 모두가 모인 사람들 앞에 있다면,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당신이 관찰한 진정한 자질에 대해 마지막으로 칭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좋은 본보기임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사실, 그 단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단어, 여기서의 성격이 그의 그리스도인 삶이 시험되었고 순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고, 변함없이 남아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디모데에 대해 알아야 할 특성입니다.

다섯째,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보내 그들이 그에게서 모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이거 좋네요. 알겠어요, 아니, 아마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누군가가 그냥 일어나거나, 제 상사가 그냥 펜과 종이를 집어들거나, 컴퓨터에 앉거나, 아이패드를 집어들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것은 내가 회사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좋은 모범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 뛰어난 자질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자질에 대한 바울의 정확한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9~24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디모데를 곧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에 대한 소식으로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디모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디모데의 입증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치 아버지가 있는 아들처럼, 그는 복음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될지 보는 대로 그를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나도 곧 갈 것이라고 믿는다.

와우. 이게 한 학자의 복잡한 단어를 설명하려는 방식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한 이 특정 강의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평등과 성격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인들에게 같은 깊이 자리 잡은 사랑과 관심을 공유했습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디모데가 그들의 개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 당신을 엉뚱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일 뿐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실제로 리스트라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명성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반 유대인이고 반 이방인이었고, 사실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교도들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항상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할례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또 다른 토론에서 학생들은 그가 왜 반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다면, 그 아버지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결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바울이 그를 할례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루이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이 칭찬할 만한 전통을 전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양육은 경건한 양육이었습니다. 그는 리스트라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았을 때, 바울은 그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여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즉, 우리가 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말한 것은 바울이 어딘가에서 아침하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사실, 그는 교회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입니다. 지금까지 이 특정 강의에서 우리가 할 토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2장은 "이러한 연합의 감각이 있다면, 위로와 위안이 있고, 격려가 있고, 교회에 강한 연합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두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순종의 힘든 길을 걷게 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교회에도 순종으로 걸으라고 도전하고, 그들에게 빛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순종으로 빛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행동에서 빛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방으로 빛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순종의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따라야 할 순종의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시는 실현 가능합니다. 그는 먼저 그것을 한 사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또한 2장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사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강의를 끝내기 전에 당신의 두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훌륭한 본보기이고 다른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도 훌륭한 본보기라고 교회에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저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가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할 것입니다.

바울과 동지로 섬긴 사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참된 성격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 그리고 빌립보로 돌아갈 때 그들이 넓은 팔로 그를 맞아주기를 바랐던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나려면 순종으로 빛나야 합니다.

당신이 본받고 싶은 순종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관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특정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부르긴 했지만 순종의 풍요로움에 대해 가르쳐주지는 않았을 찬송가의 한 구절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요. 이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서 저희와 함께 계속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즐기고 계시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로부터 풍부한 자료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빛나라는 호소, 빌립보서 2:12-30입니다.